

허버트 조지 웰스의 『타임머신』과  
2010년대 할리우드 SF영화에 나타난  
시간초월 양상 연구  
—『소스 코드』, 『엣지 오브 투모로우』,  
『인터스텔라』를 중심으로

김은정\*

1. 서론
2. 시간초월 장치에 내재된 상징적 모티프와 시대적 담론
  - 2-1. 소설 『타임머신』의 ‘타임머신’에 나타난 상징구도와 혼종적 정체성
  - 2-2. 시간초월 모티프에 투영된 시대적 특수와 통제적 회복의 욕망
3. 2010년대 할리우드 SF영화에 나타난 시간초월의 전개 양상
  - 3-1. 가상적 회귀를 통한 트라우마의 치유, 『소스 코드』
  - 3-2. 반복적 죽음을 통한 생존의 강화, 『엣지 오브 투모로우』
  - 3-3. 중력을 통한 시간초월의 가시적 증명, 『인터스텔라』
4. 결론

#### 국문요약

본고는 최근 할리우드에서 제작, 발표되고 있는 SF영화 서사 속 시간초월의 양상과 그것이 함의한 정서적 동기 및 상징적 의미에 주목하도록 한다. 과학적 허구를 통한 가상의 시간 혹은 공간으로의 서사적 접근은, 아직 구현되지 않은 인간의 잠재적 가능성에 관한 기대와 믿음을 자극해 왔다. 19세기부터 본격적인 계보를 확립하며 그 첩병으로서 중추

---

\* 중앙대학교 문예창작학과 박사 수료

적 역할을 수행해 온 공상과학소설은, 파격적인 가설과 메타포, 이를 뒷받침하는 이론으로 당대의 과학자들에게 깊은 영감을 주기도 했다. 요컨대, 이 일련의 장르가 당대의 커다란 사회적 반향으로 확장될 수 있었던 것은, 시대가 직면한 문제에 관한 정밀한 분석과 그것을 가능케 하는 해안 덕택일 것이다. 시간초월 서사도 예외는 아니었다. 주제 혹은 부분적인 모티프로써 이미 수많은 작품에 차용되며 그 골격을 다져 온 시간초월은, 그 역사만큼이나 시대적인 의미에 있어서 다양한 변주를 거듭해왔다.

특히 허버트 조지 웰스의 『타임머신』이 미래의 풍광에 대한 디스토피아적 세계관을 구축, 19세기 말 산업혁명으로 촉진된 자본의 비대화와 윤리적 해이를 비판하며 시간초월의 의미적 위치에 있어서 구체적인 전범 역할을 했다면, 1960년대를 기점으로 할리우드에서 꾸준히 발표되고 있는 시간초월 SF영화들은 뛰어난 영상기술과 시대밀착적인 담론을 앞세워 21세기 시간초월 서사의 선봉장 역할을 하고 있다. 예컨대, 최근 2010년도 이후 발표된 일련의 작품들, 『소스 코드』(2011), 『옛지 오브 투 모로우』(2014), 『인터스텔라』(2014) 등은 그 시대정신을 계승하며 각기 다른 과학적 모티프와 대안으로 자성(自省)과 함께, 다가올 앞날을 진단하고 있는 것이다.

(주제어: 과거, 공상과학, 미래, 상대성이론, 시간여행, 시간초월, 욕망, 중력, 타임루프, 타임머신, 타임슬립, 할리우드 영화, 환상(문학), 회복.)

## 1. 서론

본고는 ‘시간여행의 창시자’라 할 수 있는 허버트 조지 웰스의 소설, 『타임머신』을 중심으로, 최근 할리우드에서 제작, 발표되고 있는 SF 영화 서사 속 시간초월의 양상과 그 정서적 동기 및 상징적 의미의 분석에 그 목적을 둔다. 과학적 허구를 통한 가상의 시간 혹은 공간으로의 문학적 접근은, 아직 구현되지 않은 인간의 잠재적 가능성에 관한 기대와 믿음을 자극해 왔다. 쥘 베른(Jules Verne, 1828~1905) 이후, 본격적인 계보를 가지며 그 첨병으로서 중추적 역할을 수행해 온 공상과학소설(Science Fiction)은,<sup>1)</sup> 시대를 앞선 파격적인 장치 설정과 비전으로 당대의 과학자들에게 어떤 영감을 주기에 이르렀다.<sup>2)</sup> 그러나 무엇보다 이 일련의 장르 작품이 당대의 커다란 사회적 반향으로 확장될 수 있었던 것은, 그것이 담지하고 있는 문제의식 때문일지도 모른다. 요컨대, 작가들의 밀도 있는 과학적 관점과 창의적 접근이 과학자들의 호기심을 유발했다면,<sup>3)</sup> 그것을 기반으로 가공되고 있는 내러티브와 이를 통해 생성되는 시대적 의미개체들은, 독자들에게 단순한 유희와 쾌락 이상의 어

1) 공상과학소설(Science Fiction)의 효시로는 쥘 베른의 『5주간의 기구여행』을 꼽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에 대한 상세한 부분은 신상성, 『역사 속의 공상과학소설 유형 연구』, 『인문사회논총』 창간호, 용인대학교 인문사회과학연구소, 1998, 88쪽을 참고하도록 한다.

2) 1969년에 유인우주선 아폴론 11호로 인류가 최초로 달 착륙에 성공한 것이 쥘 베른의 『지구에서 달까지』(1869)가 발표된 시점에서 정확히 1세기 후라는 사실을 감안한다면, 이는 아나톨 르브라즈의 말대로, 상상력을 통한 문학과 과학의 경이로운 연결이 아닐 수 없다.

3) 20세기 최고의 천문학자 중 하나였던 에드윈 허블(Edwin Hubble, 1889~1953)이 쥘 베른의 작품에 감명을 받아 과학자의 길로 들어선 것은 이미 유명한 일화다. 또 다른 천문학자이자 작가인 칼 세이건(Carl Sagan, 1934~1996) 역시 이와 유사한 사례로 과학에 입문한 케이스다. 이에 대해서는 미치오 카쿠, 박병철 역, 『불가능은 없다』, 김영사, 2010, 11쪽을 참고하도록 한다.

떤 메타포로서 다가왔을 것임이 틀림없다. 시간초월 서사도 예외는 아니다. 작품 전체를 관통하는 주제 혹은 부분적인 모티프로서 이미 소설을 비롯한 수많은 서사 양식에서 차용되어 온 시간초월은, 그 역사만큼이나 의미 역시 다양하게 변주되어 왔다. 첨예화되고 있는 과학이 삶의 영속에 대한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인류가 아직 이르지 못한 절대적 영역에 대한 가시적인 도전을 가능케 했듯, 시간초월에 내재된 의미 역시, 더 이상 단순히 가공의 세계를 관장하거나 환상의 부속물로서의 기능만을 자처하지 않는다. 오히려 현실적인 기호나 가설 등으로 치환됨으로써 시간초월의 행위가 갖는 의미 역시, 더욱 방대해지고 심오해지고 있다. 예컨대, 최근 개봉작인 『인터스텔라』(2014)<sup>4)</sup>를 통해서도 알 수 있듯, 시간은 더 이상 추상적이고 불가항력적인 가치나 개념이 아니며, 인간의 물리적인 접근으로 조우가 가능한 개체로까지 상정되고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살폈을 때, 영상 콘텐츠 서사에 시간여행을 비롯해 인간과 시간의 역학 관계를 다룬 작품들이 근래 대거 등장한 것<sup>5)</sup>은 결코 우연으로 치부할 수만은 없다. 시간초월의 양상에 함의된 성향과 각각의 의식에 대한 보다 근원적이고 통합적인 탐색이 요구되고 있는 것이다.

논자는 이를 위해 『타임머신』과 더불어, 시간초월을 주제 자체로 내세우거나, 근저에서 다각도로 서사에 관여시키는 최근의 SF영화들을 살피고자 한다. 또한, 그 경향을 함축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텍스트는 최근

4) 크리스토퍼 놀란(Christopher Nolan)이 각본과 연출을 동시에 맡은 이 작품은, 인류의 구원이라는 슬로건을 걸고 우주를 여행한다는 측면에서 기존의 휴머니즘 드라마에서 크게 벗어나 있지는 않지만, 상대성이론(theory of relativity)과 웜홀(wormhole)이라는 과학적 근거를 토대로 인간이 우주적 시간을 일정 부분 통제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설득력 있게 제시해내고 있다.

5) 2014년 11월~ 2015년 2월 현재, 극장에서 개봉한 할리우드 영화만으로 범위를 제한해도, 시간초월을 다루고 있는 SF작품은 『인터스텔라』(2014), 『타임 패러독스』(2015), 『백 투 더 비기닝』(2015) 등 세 편에 이른다. 거의 한 달꼴로 발표되고 있는 셈이다.

5년 안에 개봉된 할리우드 작품으로 제한하도록 했다. 각각의 작품에는 시간초월을 가능케 하는 고유의 상징적 체계가 있다고 판단, 이를 단초로 그 양상을 분석해 나갈 것이다. 시대적 특수성은 시간여행에 과학적인 근거와 의미를 처음으로 제시했다고 할 수 있는, 허버트 조지 웰스(Herbert George Wells, 1866~1946)의 『타임머신』을 통해 논지의 당위성을 확보해 나가도록 하겠다. 소설을 비롯한 이전의 예술들이 예술가의 영감과 충동에 의해 탄생된 것이라면, 영화는 명백히 기술적인 발명에 의해 탄생했다고 할 수 있다. 역동적인 공간의 창출과 시간의 공간화가 가능한 이 새로운 매체는, 기존 매체들의 표현의 한계를 극복하고 한 세기만에 주도적인 서사방식으로 자리 잡았다.<sup>6)</sup> 그러나 이러한 형세가 소설 등이 담지한 기호와 문제의식 그 자체의 변질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여기에는 기존의 서사 예술에서 경험하지 못했던 새로운 이미지의 창출을 통해 새로운 역사를 만들하고자 하는 작가의 욕망이 녹아 있다.<sup>7)</sup>

2010년대 이후로도, 영화를 화두로 시간여행과 관련된 연구 논문은 꾸준히 발표된 바 있다. 서곡숙은 「시간여행 영화의 쾌락 : 시간, 죽음, 두려움으로부터의 해방」(2010)을 통해 2000년대 이후 시간여행 영화들이 급증했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으며, 여기에 관객의 욕구 및 쾌락이 호응되고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sup>8)</sup> 아울러 그녀는, 이러한 특성들이 죽음, 시간, 두려움으로부터 해방되고자 하는 가상현실의 목표와 부합한다고 말한다. 최영진과 김민중은 「시간여행 영화의 비선형적 사유 : 〈도니 다

6) 서정남, 『영화서사학』, 생각의 나무, 2004, 14쪽.

7) 최영진·김민중, 「시간여행 영화의 비선형적 사유 : 〈도니 다코〉를 중심으로」, 『문학과 영상』 제11권 3호, 문학과영상학회, 2010, 849쪽.

8) 서곡숙, 「시간여행 영화의 쾌락 : 시간, 죽음, 두려움으로부터의 해방」, 『영상예술연구』 18호, 영상예술학회, 2011, 95쪽.

코)를 중심으로」(2011)에서 60년대 영화가 전후 정신적인 외상을 극복하기 위해 과거와 기억의 정형화된 틀에서 벗어나 시간 이미지를 통해 새로운 사고를 가능하게 했다고 이야기한다. 그들은 영화 『도니 다코』역시, 그러한 연장선상에서 쌓여가는 현실의 불만을 타개해하려는 저항의 힘이 이미지로 나타나는 작품이라고 분석한다. 문학적 테두리 안에서 감지되는 시대정신은 여전히 유효하게 계승되고 있지만, 새로운 시간적 이미지가 기존의 경직된 서사를 갱신할 수 있음을 암시하고 있는 것이다.

## 2. 시간초월 장치 내재된 상징성과 시대적 담론

### 2-1. 소설 『타임머신』의 ‘타임머신’에 나타난 상징구도와 혼종적 정체성

우선, ‘시간여행’이라는 개념이 어디서부터 소재적인 특수성을 확보했는지를 간단히 살펴보자. 과학적 탐구와 관심이 근대 이후 시간초월에 대한 관심을 이론적으로 환기시킨 것은 사실이나, 그것을 근대 이후의 전유물로 판단하기에는 약간의 무리가 따른다. 고전 민담 등에서도 확인할 수 있듯이 ‘시간초월’은 간접적 혹은 부수적으로 일정 부분 서사에 관여해 왔기 때문이다.<sup>9)</sup> 시간적인 영역 그 자체를 개념화시켜 상징하지는 않았기 때문에 일견 투박하게 비춰질 여지가 있으나, 시간초월이 고대로부터 일정한 시대적 관심사에 속해 있었음을 유추해볼 수 있는 대

9) 예컨대, 『사계절의 땅 원천강 오늘이』와 『서천꽃밭 한락궁이』를 보면 알 수 있듯, 시간초월에 ‘공간’의 개념이 확장된 ‘시공초월’의 개념은 이미 우리 고전 신화와 민담 전반에 녹아들어 있다. 이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신동훈, 『살아있는 우리 신화』, 한겨레출판, 2004를 참조하도록 한다.

목이다.

하나의 정형화된 소설로서 ‘시간여행’이 소재로 차용된 최초의 작품으로는 19세기에 창작된 마크 트웨인(Mark Twain, 1835~1910)의 소설, 『아서왕 궁전의 코네티컷 양키』를 꼽을 수 있을 것이다. 헝크 모건이라는 19세기 미국인 기술자를 주인공으로 내세운 이 작품은, 아서왕이 사는 6세기의 영국으로의 시간여행을 골자로 하고 있다.<sup>10)</sup> 주인공이 과학적 지식과 기술로 미신과 마법이 판치던 중세 영국 사회를 전복하려 한다는 점<sup>11)</sup>에서 이 소설은 중세 왕족과 귀족에 대한 풍자적 의도를 동반한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①시간여행을 하는 경위가 단순히 우연한 사고로 설정되어 있다는 점, ②우의성(愚意性)을 담보로 하는 구체적 장치가 부재하고 있다는 점, ③그것을 대체할만한 일정한 이론 체계가 존재하고 있지 않다는 점<sup>12)</sup> 등은 이 작품이 본격적인 SF소설이라기 보다는, ‘환상문학의 성향<sup>3)</sup>에 더욱 가깝다는 것을 방증한다. 다만 미래지향적인 당대의 관심을, 과거로의 실존 인물과 실존 사회로의 회귀를 통해 진단하고 있다는 점은, 이 작품에만 나타나는 특색임에는 틀림없

10) 이에 대한 텍스트로는 마크 트웨인, 김영선 역, 『아서왕 궁전의 코네티컷 양키』, 시공사, 2010을 참고하도록 한다.

11) 주인공 모건이 마법사 멀린을 사기꾼 취급하며 과학적 식견으로 압도하는 장면, 신교를 들여와 교회와 수도사들의 억압에서 서민들을 구해내려는 장면 등은 그 대표적 예라 할 수 있다.

12) 모건은 자신의 부하와 사소한 다툼 끝에 쇠파이프를 맞아 정신을 잃고, 그것을 계기로 시간여행을 하게 된다.

13) 토도로프는 구조주의적 관점에서 환상문학 장르를 다음과 같이 구분한 바 있다. 즉, SF계열의 소설과 같이 초자연적인 사건을 초자연적으로 설명하는 작품군은 ‘경이문학’, 초자연적인 사건을 자연적인 것으로 설명하는 작품군은 ‘미스터리 문학’, 초자연적인 사건을 쓰지만, 그 해답은 독자에게 맡기는 작품군은 ‘환상문학’으로 구분하고, 이 세 가지 개념을 모두 ‘광의의 환상문학’이라고 정의 내렸다.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츠베탕 토도로프, 최애영 역, 『환상문학서설』, 일월서각, 2013, 7~48쪽을 참조하도록 한다.

다.<sup>14)</sup>

과거로의 타임슬립을 통해 시간초월의 소재적 영감과 가능성을 제공한 작품이 마크 트웨인의 『아서왕 궁전의 코네티컷 양키』라면, ‘시간여행’이라는 용어를 확립,<sup>15)</sup> 과학적 상상을 동원해 이를 본격적인 SF 장르로 이끈 작품은 바로 허버트 조지 웰스(Herbert George Wells, 1866~1946)의 『타임머신』(1895)일 것이다. 특히 소설의 제목이 그대로 대변하듯, ‘타임머신’은 통합적 상징 개체로서 작품 그 자체를 관통한다. 후대의 작가들과 과학자들에게 영감을 주는 것을 넘어서, 이제는 하나의 관용적 표현이 되어버린 이 파격적인 소재는 그 이상의 복합적인 무엇을 가진다. 우선, 초자연적인 현상이나 사건을 통해 시간과 시간의 틈새로 미끄러지는 타임슬립과는 달리, ‘타임머신’은 구체적인 연구를 통한 결과물로 시간의 상대성에 도전한다는 점에서 다분히 능동적이며 필연적이다. 그러나 이러한 경향에 단순히 발명품으로서의 과학적 성취나 가치만이 동반되는 것은 아니다. 타임머신이 최초로 공개되는 장면을 잠시 살펴보자.

“시간여행 기계의 시험용 모델이라고 할까. 이 기계가 전체적으로 독특하게 기울어져 있는 모양이고, 이 막대에 특이하게 반짝이는 부분이 붙어 있는 것이 보일 걸세. 어때, 비현실적으로 보이지 않나?”

그는 손가락으로 그 부분을 가리켜 보였다.

“그리고 여기 보면 작은 흰색 손잡이가 있지. 이쪽에도 하나 있고.”

14) 시간적 설정에 있어서 연장선상에 있는 최근 할리우드 작품으로는 우디 앨런 감독의 『미드 나잇 인 파리』(2012)를 꼽을 수 있다. 주인공인 소설가 길은 밤 산책 중 1920년대 근대의 파리로 홀연히 시간초월을 해 헤밍웨이와 T.S. 엘리엇, 살바도르 달리 등 당대에 실존했던 예술가들과 교감을 나눈다. 현대와 근대를 오가는 이 작품에 등장하는 과학적 장치라고는 고작 낡은 푸조(Peugeot) 한 대 뿐이다.

15) 이 작품 첫 장(章)의 부제이기도 한 ‘시간여행자’라는 개념 역시, 이 작품에서 처음으로 사용하는 개념이다.



의사는 자리에서 일어나 그 기계를 자세히 바라보며 말했다.  
“아름다운 물건이군.”

- 『타임머신』 1장, 『시간여행자』 중에서<sup>16)</sup>

소설가 신상성의 말대로 과학소설이 예술적인 탐미를<sup>17)</sup> 담지하고 있다면, 동시에 타임머신에는 인간의 미적인 적극성이 만들어낸 예술 작품으로서의 가능성 역시 장착되기 때문이다. 관상(觀象)뿐만 아니라, 최초의 조작적 체험을 통해 새로운 시간과 공간으로의 조우를 가능케 한다는 점에서, 타임머신은 몇몇 초현실주의자(surrealist)들이 그랬듯, 충분히 전위적(avant-garde)이다. 이러한 이중적 기호 속에 위치한 ‘타임머신’의 상징성은, 디스토피아적 미래로 그 행선지를 정하면서 혼종적 양상으로 치달는다. 이는 타임머신을 탄 ‘시간여행자’가 친구들과 지인들에게 들려주는 이야기에서 보다 분명해진다.

고요라? 이런 단어로 그 정적을 담아낼 수는 없을 걸세. 인간의 소리, 양 울음 소리, 새 지저귀는 소리, 곤충의 날갯짓 소리, 우리 삶의 배경 음악이 되는 이런 잡음이 모두 사라져버린 상태였던 말이네. (……) 다시 모래톱에서 붉은 바다를 배경으로 뭔가가 움직이는 것이 보였네. (……) 나는 거의 실신하기 직전이었네. 하지만 이 적막하고 끔찍한 황혼의 세계에 무력하게 누워있게 되는 일에 대한 공포, 바로 그 공포가 내 몸을 지탱해 간신히 안정<sup>18)</sup> 위로 기어오를 수 있도록 해주었다네.

- 『타임머신』 11장, 『상상할 수 없는 미래』 중에서<sup>19)</sup>

타임머신의 주된 원리는 빛보다 빠른 속도에 있다. 그러나 그 가속화

16) 허버트 조지 웰스, 조호근 역, 『타임머신』, 해와나무, 2013, 21쪽.

17) 신상성, 『역사 속의 공상과학소설 유형 연구』, 『인문사회논총』 창간호, 용인대학교 인문사회과학연구소, 1998, 87쪽을 참고하도록 한다.

18) 타임머신의 내부 조종석을 의미한다.

19) 허버트 조지 웰스, 조호근 역, 『타임머신』, 해와나무, 2013, 180~181쪽.

된 시간과 이상화(理想化)된 현실이 비례하는 것만은 아니다. ‘타임머신’을 이용해 서기 802701년으로 향한 ‘시간여행자’가 다시 삼천만 년 후에 마주한 것은, 참을 수 없는 어둠과 적막, 그리고 거기서 빛어지는 공포감과 추위였다. “핏빛 바다를 배경”으로 ‘시간여행자’의 눈앞에서 “펼쩍 펼쳐 뛰면서 돌아다니고 있는” ‘검은색’의 “작고 둥근”, “촉수가 자라나 있는” 괴(怪)생명체는 ‘시간여행자’의 심경을 대변하는 객관적 상관물에 다름 아닐 것이다. ‘타임머신’은 당대의 문화와 과학에 자신감을 불어넣을 수 있는 가장 우월한 발명품이자, 예술품이었지만 이 걸작은 역설적이게도 가장 정확하게 인류의 파멸을 진단하고 체험하게 해주는 도구가 되고 말았다. 웰스 자신은 질 베른과 비교해 “나의 작품의 발명과 발견은 공상적이고 실현 가능성이 전혀 없다.”<sup>20)</sup>라며 선을 그었지만, 타임머신에 관한 이론적인 검증과 발명이 점차로 가시화되고 있는 현재 상황<sup>21)</sup>에 입각했을 때, 더 이상 그의 발언이 유효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어쩌면 마크 트웨인이 그랬듯,<sup>22)</sup> 그 자신의 심리적 기저에도 사회개혁

20) 허버트 조지 웰스, 조호근 역, 『타임머신』, 해와나무, 2013, 202쪽에서 재인용.

21) 우주선이 생성하는 고에너지인 뮤온(muon)은 지구 대기권을 향해 끊임없이 쏟아지고 있는 입자 중 하나이다. 뮤온의 수명은 약 백만 분의 1초에 불과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스위스 제네바의 ‘CERN’(유럽 입자 물리 연구소)의 초대형 가속기에서 뮤온을 광속에 근접하게 가속하면 수명이 늘어난다는 연구결과가 보고 됐다. 광속에 근접한 속도로 움직이는 뮤온의 입장에서는 시간이 아주 천천히 가기 때문이다. 과학자들은 이렇게 뮤온에 적용되는 시간의 속도를 늦춰 미래로 보낼 수 있다고 이야기 한다. 타임머신의 이론 구상에 가시적 영역에 들어섰다는 의미다. 물론 광속에 도달하기까지의 무한에 가까운 에너지원을 어떻게 해결하느냐는 아직 난제로 남아 있다. 이에 대해서는 다크 사이언스, <공상과학의 오랜 꿈 - 타임머신> [http://navercast.naver.com/contents.nhn?rid=57&contents\\_id=2145](http://navercast.naver.com/contents.nhn?rid=57&contents_id=2145) 에서 일부 인용하도록 한다.

22) 영문학자 서지문은 『아서왕 궁전의 코네티컷 양키』에서 감지되는 메시지가 다분히 혼란스러운 것이라고 말한다. 그녀는 트웨인 자신이 노예제도를 비롯한 중세의 기사도에 담긴 모순에 격렬한 혐오를 느끼면서도, 그가 멜러리의 『아더왕의 죽음』을 읽고 기사도에 매혹되었음을 스스로 고백하는 등, 기사도에 대한 흥미와 동경을 완전히 떨쳐버리지 못했음을 지적한다. 이에 대해서는 서지문, 『영국소설을 통해 본 영국

의 지지와는 별개의, 당대의 탐구심이 쌓아올린 과학기술에 대한 깊은 야심과 동경이 깔려 있었는지도 모른다.

## 2-2. 시간초월 모티프에 투영된 시대적 특수와 통제적 회복의 욕망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타임머신’은 하나의 독립적인 개체로서 존재할 때, 선천적으로 무궁한 가능성을 잠재한다. 그것을 가동하기 전까지는, 적어도 우리가 모르는 어떤 미지의 영역으로의 도전에 대한 거의 무한대의 가치를 담보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그것이 가동되는 순간, 이러한 가치는 일종의 인식 유발 효과, 혹은 학습 효과로 전환된다. 예컨대, 한 아이가 있다고 가정해 보자. 부모는 그 아이에게 무한한 성장과 선택의 가능성을 전제한다. 그리고 그 아이가 자라 어떤 분야에서 평생의 업(業)에 종사하게 되었다고 하자. 부모는 이를 통해 아이에게 부여한 애정, 교육, 지리적 환경 등에서 일정한 데이터를 습득하여 특정한 결론에 도달할 수 있을 것이다. 즉, 아이를 통해 어떤 현상을 인식하고 학습하게 된다는 것이다. 놀랍게도 그것은 자신에 대한 직간접적인 투사가 되기도 한다.<sup>23)</sup> 마찬가지로, 조종사인 ‘시간여행자’의 손길을 타게 되었을 때, 하나의 의지가 반영된 타임머신은 어떤 인식체로 변모하게 된다. 이는 ‘시간여행자’가 ‘타임머신’을 사용해 최초로 ‘시간여행’을 떠날 때의 심경에서도 찾아 볼 수 있다.

(……) 결국 내 마음속에서 자라나고 있던 광기를 따라 미래로 날아가기 시작했네. 처음에는 이런 감각에 사로잡힌 바람에 그 외에는 아무런 생각도, 심지어는 멈출 생각조차도 할 수가 없었네.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호기심과 두려움이

신사도의 명암』, 세창출판사, 2014, 224쪽을 참고하도록 한다.

23) “아이는 부모의 거울이다.”라는 옛 중국 성어를 상기해 보도록 하자.

뒤섞인 새로운 생각이 떠오르기 시작했고, 마침내 내 마음을 완전히 사로잡아버렸지. 인류가 이루었을 기묘한 발전, 우리의 원시적인 문명이 다다랐을 놀라운 진보가, 내 눈앞에서 깜빡이며 스쳐지나가는 저 흐릿한 세계 안에서 모습을 드러낼 수도 있지 않겠나!

- 『타임머신』 3장, 『시간여행을 다녀오다』 중에서<sup>24)</sup>

과학에 잠재되어 있던 위대함과 무모함이라는 양가적인 측면은 일차적으로는 개인의 관점과 사고로, 나아가 특수한 시대적 상황으로 확장된다. 개인은 그 자체로서는 온전히 독립적이지만, 시대에 있어서는 구성체 중 일부로서의 숙명을 가지기 때문이다. ‘타임머신’은 결국 웰스 자신의 생각과 사상을 대변하고 반문하게 하는 거울의 기능을 넘어서, 당대를 진단하고 전망하는 측정계(測定計)의 역할을 자청하게 된 것이다. ‘시간여행자’가 처음 다른 차원의 사물과 마주했을 때가 가지는 감정의 동선은 즉발적인 개인의 감각을 넘어, 시대적 경향으로 환원된다.

주변에 훌륭하고 웅장한 구조물이 일어서는 모습이 보였네. 우리 시대의 그 어떤 건물보다도 거대한데도 마치 희미한 빛과 안개로 지은 듯한 모습이었지. 언덕을 따라 보다 선명한 초록빛이 깔리는 모습과, 그 초록색이 전혀 시들지 않고 계속 남아 있는 모습도 보았네.

- 『타임머신』 3장, 『시간여행을 다녀오다』 중에서<sup>25)</sup>

『타임머신』이 쓰인 19세기 후반의 영국은, 이미 세계에서 가장 부유하고 막강하며 거의 완전히 산업화된 국가였다.<sup>26)</sup> 소위 ‘빅토리아 정신(Victorianism)’<sup>27)</sup>으로 정의되는 이 시기에는, 발명과 창조가 풍요로웠으

24) 허버트 조지 웰스, 조호근 역, 『타임머신』, 해와나무, 2013, 49쪽.

25) 허버트 조지 웰스, 조호근 역, 『타임머신』, 해와나무, 2013, 49쪽.

26) 김일구, 『영미문학개관』, 미래교육기획, 2012, 224쪽.

27) 존 가렛(John Garrett)은 이 용어를 두고 “19세기의 주요한 시기를 포괄하는 우산과도 같은 용어”라고 말한다. 아울러 그는 “19세기는 인간의 다양한 성취 결과와 그것을

며, 산업세계뿐만 아니라 도덕적, 종교적, 철학적, 예술적 분야에서도 열정적인 활동들이 이루어졌다.<sup>28)</sup> ‘타임머신’이 일종의 교통수단임을 감안한다면, 작품의 모티프를 구상함에 있어서 웰스에게 가장 잠정적인 영감을 발휘한 것은 다름 아닌 증기기관차일 것이다. 왜냐하면 산업혁명을 활기차고 역동적인 단계로까지 몰고 간 것은 철도와, 거기서 제공된 원거리 소통과 값싼 수송력에 대한 잠재력이었기 때문이다.<sup>29)</sup> 이를 통해 당대의 영국은 새로운 시장, 요컨대 아직 개척이 덜된 미지의 영토들에 대한 충동과 욕망을 구현 가능한 사정권으로 끌어올 수 있었다. 그러나 제국주의에 기반한 시장 개척은 식민지의 강제적 근대화와, 원주민들의 노동력에 대한 일방적 착취라는 문제점을 동시에 안고 있었다. 식민지 통치에 파견된 담당자들의 부정부패는 어찌하면 이미 그들이 발명한 철도의 종착역만큼이나 빠른 행선지였는지도 모른다.

여러 가지 윤리적인 문제점에 당면했음에도 불구하고, 국외적으로는 초강국의 면모를 과시하며 절정의 식민지 왕국을 개척했던 이 시기, 영국의 내부는 노벨이 개발한 다이내마이트<sup>30)</sup>의 뇌관만큼이나 위태로워지고 있었다. 부유한 지주들과 공장의 제조업자들은 자유방임주의의 인생관 속에 호의호식하며 사치스러운 생활을 즐기던 반면, 수공업자들과 농부들의 실업은 확대되고, 노동자는 16시간의 노동으로 혹사당했으며 가난한 집 아이들의 인권은 유린당하기 일쑤였다.<sup>31)</sup> 놀랍게도 카이사르 치하에 있었던 고대 로마의 정경이 유사하게 재현<sup>32)</sup>되고 있었던 것이

---

목표로 추구한 엄청난 에너지가 분출했던 독특한 시기”라고 정의 내린다. 이에 대해서는 존 가렛, 최영승 역, 『영국시의 이해와 역사적 개관』, 동인, 2013, 248쪽을 참고하도록 한다.

28) 존 가렛, 최영승 역, 『영국시의 이해와 역사적 개관』, 동인, 2013, 251쪽.

29) 존 가렛, 최영승 역, 『영국시의 이해와 역사적 개관』, 동인, 2013, 249쪽.

30) 노벨(Nobel)의 다이내마이트는 1866년에 개발, 1867년에 처음 그 모습을 드러냈다.

31) 김일구, 『영미문화개관』, 미래교육기획, 2012, 192쪽.

다. 사회개혁자이자 문명비평가였던 웰스가 이를 놓칠 리 없었다. 이는 ‘시간여행자’의 입을 통해서도 선명히 드러난다.

나는 인류의 지성이라는 꿈이 얼마나 단명했는지를 생각하며 애도했다네. 인류의 지성은 자살한 거야. (……) 부유한 이들은 재산과 안락함을 보장받고, 노동자들은 생명과 일자리를 보장받았겠지. 그 완벽한 세계에서는 실업 문제 따위도 없고, 해결할 수 없는 사회 문제가 남아 있지도 않았을 거야. 그래서 위대한 평은 이 그 뒤를 따라온 거지.

- 『타임머신』 10장, 『다시 찾은 타임머신』 중에서<sup>33)</sup>

‘시간여행자’는 ‘지성’이란 애초에 “환경과 완벽하게 조화를 이룬 동물”에게는 불필요한 것이며, “변화도 없고 변할 필요도 없는 곳”, 즉 ‘안락’과 ‘완벽’이 넘치는 곳에서는 ‘지성’이 불필요하다고 잘라 말한다. “매우 다양한 필요성과 위협에 직면해야만” 지성이 발동한다는 것이다. 웰스는 그 대표적인 표상으로서, 당대의 자본가와 노동자를 ‘엘로이’와 ‘몰록’이라는 두 종족으로 은유한다. 지상과 지하를 각각 기반으로 삼는 이들은 같은 인간의 형상을 했지만, 그 운명은 명백하게 갈렸다. 전자가 이미 안정의 지나친 지속 속에 “연약한 아름다움”을 지향하고 있다면, 후자는 그저 단순하게 기계를 다룰 줄 알 뿐, 식량고(食糧苦)에 무방비로 노출되어 있다. 결국 ‘몰록’족은 마지막 ‘지성’(혹은 ‘창조력’)을 쥐어짜내

32) 로물로 아우구스토 스타츨리 교수는 고대 로마가 겪었던 문제점을 크게 8가지로 나누고 있다. ① 교통 체증, ② 거리와 골목의 소음과 혼란, ③ 긴 이동시간, ④ 도시 오염, ⑤ 물가 폭등과 주택 부족, ⑥ 건물의 안전 불감증과 붕괴, ⑦ 규제 범위를 벗어난 과도한 이민, ⑧ 야간 치안문제가 바로 그것들이다. 아울러 그는 한 로마인의 입을 빌려 당시의 상황을 재구성하며 빈부격차가 그들에게 극심한 고통을 주었음을 지적하고 있다. “로마의 어느 셋집에서 잠을 청할 수 있을까? 대저택을 가진 사람이 나 잘 수 있다.” 이에 대해서는 알베르토 안젤라, 주효숙 역, 『고대 로마인의 24시간』, 까치, 2012, 179~180쪽을 참고하도록 한다.

33) 허버트 조지 웰스, 조호근 역, 『타임머신』, 해와나무, 2013, 166쪽.

참혹하고도 야만적인 선택을 하게 된다. 지상으로 올라가 ‘엘로이’족을 도륙하며 잡아먹기 시작한 것이다. 여기에는 승자도 패자도 없었다. 그것은 멸망과 함께 “여러 개의 입안에서 수많은 촉수들이 꿈틀대는” 또 다른 개체의 출현을 재촉했을 뿐이었다.

웰스가 말하는 인류의 미래는 이처럼 참담하기 그지없다. 단순히 자본가와 노동자의 조화와 상생만이 더 나은 미래를 보장한다는 그런 도식적인 경종을 독자들에게 울리려는 의도는 아니었을 것이다. 어쩌면 그는 시대에 관한 회의(懷疑), 나아가 어떻게 무수히 교차하는 탐욕을 통제하며 인류가 무사히 전진해나갈 수 있는가에 관해 말하려고 하였던 지도 모른다. 그렇다면, 첨단과학으로 완성된 ‘타임머신’은 매우 역설적이게도, 지성이라는 욕망이 만들어낸 극한의 ‘발명품’이자 감성을 선도한 ‘예술품’이며, 동시에 미지의 미래에 관한 인식을 유발시키는 ‘마지막 대안’이자, 그것들을 소통케 하는 ‘회복의 열쇠’였던 셈이다.

### 3. 2010년대 할리우드 SF영화에 나타난 시간초월의 전개 양상

#### 3-1. 가상적 회귀를 통한 트라우마의 치유, 『소스 코드』(2011)

웰스의 『타임머신』이 미래로의 시간여행을 통해 현실의 ‘자성’과 ‘대비(對備)’에 관한 사유를 획득해내고 있다면, 최근 영화에서 구현되고 있는 과거로의 시간여행은 재현을 통한 ‘치유’와 ‘수복(收復)’의 욕망에서 비롯된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왜냐하면 미래는 아직 미지의 것으로, 어떤 결과론적인 감정을 내재하지 않지만, 과거의 시간은 ‘그리움’<sup>34)</sup>과

34) 시간초월 서사는 아니지만, 최근 극장가에서 천만 관객을 돌파한 『국제시장』(2014)

‘후회’를 담보하기 때문이다. 특히 ‘후회’의 경우는 일반적으로, 과거의 한 지점에서 시발된 부정적인 파장이 현재적 시점에서 연쇄적으로 확장되었음을 의미한다. 결국 이에 대한 극복은 현재의 시간에 대한 초기화, 즉 시간의 재배열이라는 선택지와 맞닿게 되는데, 이는 과거로의 회귀라는 과정을 거치지 않으면 안 된다. 다만 상대성이론(theory of relativity)을 통해서도 알 수 있듯, 물리적인 육체로 과거로 회귀하는 것은 현실적인 이론만으로는 불가능하다. 그렇다면 이 문제에 관해 던칸 존스(Duncan Jones, 1971~)의 2011년 작, 『소스 코드』는 어떤 대안을 제시하고 있을까. 이 작품은 미 공군 소속의 ‘콜터 대위’가 과거로 돌아가 주어진 8분 안에 폭파 테러범을 색출하는 SF스릴러이다. 타이틀에서도 명징하게 드러나듯, 이 영화를 관통하는 가장 상징적인 모티프는 바로 콜터가 과거로 가기 위해 사용하는 ‘소스 코드’라는 프로그램이다. 같은 미 국방부 소속의 닥터 러틀리지가 테러 예방 대책으로 내놓은 이 시간초월 장치는, 죽은 인간에게 아직 남아 있는 기억의 잔상에 접근해 ‘가상의 세계’에서 원하는 정보를 얻어내는 것에 그 핵심적인 기능을 두고 있다.<sup>35)</sup> 양자역학(quantum mechanics)과 다중우주론(multiverse theory)의 원리에 착안해, 과거로의 시간여행을 가능케 하고 있는 것이다. 무엇보다 주목해야 할 부분은, ‘소스 코드’가 접속하는 대상이 과거의 ‘현재’인 동시에 ‘가상의 공간’이라는 점이다. “복수주체, 탈시공간성, 가상현실 등은 죽음, 시간, 두려움으로부터 해방되고자 하는 가상세계의 목표와 부합한다.”<sup>36)</sup>는 서곡속의 지적대로, ‘가상’이라는 단어는 대리체험이 주는 어떤

을 비롯한 『췌시봉』(2015)과 같은 복고 영화들에 꾸준히 관객을 모이고 있는 현상 역시 이러한 연유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이를 들뢰즈의 관점에서 이야기하자면, 그리움이 일종의 원초적, 즉 모태로의 회귀의식을 자극해서라고 할 수 있다.

35) 이 방식을 활용해 현재의 시점에서 이미 죽은, 기차 승객 중 한 명인 ‘선’의 잔상기억에 접속한 콜터가 테러범을 찾아내는 것이 이 작품이 당도할 최종 목적지이다.



안정적인 만족감과 치유를 전제한다. 이는 물리적인 충격에서 결코 자유로울 수 없는 ‘육신’을 대신해, 콜터의 ‘정신’만을 반복적으로 회귀시키는 이 작품의 지점과도 일치하는 부분이 아닐 수 없다. 두 번의 세계 대전 이후, 과거의 시간을 반복 혹은 변형시키려는 시도가 영화에서 끊임 없이 이어졌듯,<sup>37)</sup> 『소스 코드』 역시, 그 연장선상에서 9·11 테러에 관한 트라우마를 극복하고자 하는 의도가 작품 전반에 배치되어 있는 것이다. “과거로 여행하여 그 과거를 바꾸려는 서사 전략은 불만족스러운 현실을 타개해 보고자 하는 욕망을 보여준다.”<sup>38)</sup>는 박명진의 말처럼, 과거로의 시간 회귀 서사는 이처럼 어떤 현실적 결핍감을 전제로 한다.

물론, 이러한 회복과 재생의 포즈가 곧 시대 그 자체가 가지는 포괄적인 상처의 치유만을 의미하지만은 않는다. 『타임머신』의 ‘시간여행자’가 힘겹게 미래에서 돌아와 다시 ‘타임머신’에 타고 인간 정체성의 본질에 또다시 도전했고, 영화 『도니 다코』의 주인공 도니가 28일간의 시간을 되돌려 자신의 죽음을 사건화하며 과거와 현재, 미래를 위한 새로운 가능성을 탄생시켰듯,<sup>39)</sup> 『소스 코드』의 콜터는 생명유지 장치에 기대어

36) 서곡숙, 『시간여행 영화의 쾌락 : 시간, 죽음, 두려움으로부터의 해방』, 『영상예술연구』 18호, 영상예술학회, 2011, 95쪽 ; 서곡숙은 ‘가상현실’ 속에 컴퓨터 게임이 주는 쾌락의 가능성 역시 담지하고 있음을 언급한다.

37) 최영진·김민중, 『시간여행 영화의 비선형적 사유 : 〈도니 다코〉를 중심으로』, 『문화과 영상』 제11권 3호, 문화과영상학회, 2010, 849쪽.

38) 박명진, 『텔레비전 드라마 〈나인〉에 나타난 시간여행의 의미 연구』, 『어문론집』 제59집, 중앙어문학회, 2014, 280쪽.

39) 최영진·김민중, 『시간여행 영화의 비선형적 사유 : 〈도니 다코〉를 중심으로』, 『문화과 영상』 제11권 3호, 문화과영상학회, 2010, 849쪽 ; 9·11 테러 이후의 트라우마가 『소스 코드』의 문제의식을 직접적으로 유발시켰다면, 『도니 다코』에 나오는 현실 저항적 경향은 최영진과 김민중의 말대로, 9·11 이전의 미국사회에 쏠아 가던 간접적 문제에서 비롯되었다고 할 수 있다. 특히 이 두 영화의 주인공 역할을 동일한 배우인 제이크 질렌haal(Jake Gyllenhaal, 1980~)이 맡았다는 점은 매우 흥미로운 지점이 아닐 수 없다.

간신히 뇌만 살아 있는 현실의 자신을 결국 죽이고자 한다. 이미 그에게 있어서 ‘소스 코드’의 공간은 더 이상 가상 세계가 아니라 도구로써 이용당하지 않는, 주체적 삶의 연장이었기 때문이다. ‘소스 코드’가 시대의 트라우마에 관한 치유이자, 개인의 정체적인 균열에 관한 응시적 우의(寓意)라 할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다.

### 3-2. 반복적 죽음을 통한 생존의 강화, 『옛지 오브 투모로우』(2014)

‘반복적인 과거로의 회귀’라는 측면에서 『소스 코드』의 치유 모티브<sup>40)</sup>를 독자적으로 변주시킨 최근 작품으로는, 『옛지 오브 투모로우』를 꼽을 수 있을 것이다. 사쿠라자카 히로시(櫻坂 洋)의 소설 『ALL YOU NEED IS KILL』(2004)<sup>41)</sup>을 원작으로 삼고 있는 이 작품은, 가까운 미래, ‘미믹’이라 불리는 외계 종족의 침략으로 멸망 위기를 맞은 지구를 배경으로 하고 있다. 이 민첩하고 포악한 생명체들과 싸우기 위해 주인공 빌케이지는 자살이나 다름없는 작전에 투입되었다가 결국 전투 초반에 죽음을 맞이한다. 그러나 대부분의 장르 작품의 법칙이 그러한 것처럼, 주인공 역시 불가사의한 힘에 의해 다시 부활한다. 놀랍게도 그가 다시 되살아난 순간은 그가 죽기 직전의 바로 그 시간이다. 타임루프(time loop)<sup>42)</sup>가 일어난 것이다. 결국 빌은 자신이 죽게 될 때마다 타임루프를 활

40) 치유 모티브를 내세운 또 다른 시간초월 영화로는 이보다 한 발 앞서 개봉된 『엑스맨: 데이즈 오브 퓨처 패스트』도 범주에 속한다고 할 수 있지만, 타임루프를 소재로 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형식적인 궤를 달리한다.

41) 櫻坂 洋, *ALL YOU NEED IS KILL*, 集英社, 2004 ; 이 작품은 2007년 학산문화사를 통해 우리나라에 정식으로 발간된 바 있으며, 2014년에는 오바타 타케시(小畑健)에 의해 만화화되기도 했다.

42) 작품 속 등장인물이 동일한 시간을 반복해서 사는 것을 말한다. SF의 하위 장르로도 분류되며 시간여행 서사에서 사용된다.

용할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고, 일부러 죽음을 택하며 전술과 전략을 수정해 간다. 죽는 순간의 공포와 고통을 대가로 주인공 빌은 아이러니하게도, 시간의 통제 속에 더욱 강해지게 된 것이다. 사실, 빌의 타임루프는 그가 알파급(중간보스) 외계인을 우연하게 죽이면서 이어받은 능력이다. 이러한 빌의 능력이 SF장르에 입각했을 때 특별한 입지를 차지하는 이유는 그것을 빌 본인도, 적군인 대장급 외계인도 의도치 않았기 때문이다. 이는 특정한 목적 하에 의도적으로 만들어진 ‘타임머신’과는 그 장치의 성격적인 측면에 있어서 정확하게 대칭되는 지점이 아닐 수 없다. 요컨대, 빌이 자신의 시간초월 능력을 무기 삼아 적군을 격퇴하는 것은 어디까지나 결과론적인 분석일 뿐, 필연적으로 도달해야 할 결말은 아니었던 것이다. 그러나 자신의 능력을 자각한 이후, 빌은 시간초월의 기능과 용도를 완전하게 통제해냄으로써, 그 힘을 역이용, 마침내 적의 두뇌이자 최종 본체라 할 수 있는 오메가를 쓰러뜨리고 전쟁을 승리로 이끈다. 잠재되어 있는 초월적 시간에 대한 기능성의 승리였던 것이다. 웰스의 『타임머신』이 문명의 끝없는 고도화 속에 예견된 인류의 파멸을, 똑같은 문명의 결정체(타임머신)를 통해 보다 역설적으로 끌어내고 있다면, 이 작품은 ‘죽음의 횡수’와 ‘생존률’을 비례관계에 놓음으로써 시간초월에 또 다른 역설적 등식(等式)을 부여한다고 할 수 있겠다. 더 이상 외적 대상(도구나 기계)에 의존하지 않고, 개인의 역량에 어떤 계기가 주어져 각성이 실현되는 패턴은 영웅이 겪는 통과 의례로서 받아들여질 여지가 있으나, 그 이전에 정치적 의도가 가지는 특수한 목적과 정형성에서 탈피하고자 하는 개인의 내밀한 욕망이 투사되었다고 볼 수도 있을 것이다. 무엇보다 칸트의 말대로, 시간이 내감의 직관형식이라면, 즉 이것이 시간이 인식에서 담당해야 할 역할<sup>43)</sup>이라면, 개인에

43) 소광희, 『시간의 철학적 성찰』, 문예출판사, 2001, 337쪽.

게 투영된 시간의 감각은 더욱 각별해진다.

특정한 자질이나 운명적 접지가 없는 이가 우연히 접한 사건을 계기로 시간의 영역에 관여한다는 시간초월 서사는, 유사한 맥락에 위치한 고전 신화와 비교했을 때, 특히 시사하는 바가 크다. 비단 시간이 누구에게나 일정하게 주워지듯, 그것을 지배해 움직일 권리 역시 누구에게나 있음을 방증하기 때문만은 아닐 것이다. 어쩌면 시간초월의 서사는, 첨예화되고 있는 현대사회의 문명이 만들어낸 도식화된 삶 속의 사고(事故)나 위기 속에서 때때로 발현되는, 자각 가능한 기회 그 자체에 관한 은유인지도 모른다.

### 3-3. 중력을 통한 시간초월의 가시적 증명, 『인터스텔라』(2014)

주지하다시피, 현시점에서 인간은 지구권 안에서 생존의 가능성을 논할 수밖에 없다. 나아가 이는 시간에 관한 인식 역시 지구 중심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음을 의미한다. 우리는 국가 단위로 나뉘는 시차를 의식하지만, 시간 자체가 누구에게나 보편적이라는 사실은 부정하지 않는다. “우리 모두는 자신의 의지와 무관하게 시간이라는 강의 흐름을 따라 어쩔 수 없이 흘러가고 있다”<sup>44)</sup>는 물리학자인 미치오 카쿠의 말대로, 시간을 다분히 불가역적인 개체로 상정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아인슈타인에게 있어서의 시간은 결코 절대적인 개념이 아니며, 뉴턴에게 있어서의 시간은 한 쪽 방향으로 향해야 한다는 특수성을 갖는다. 요컨대, 시간은 숙명적이지만, 관점과 경우에 따라 그 경향을 달리한다. 그렇다면 웰스가 예견한 대로, 문명이 파국을 맞게 되고 그것을 극복할 유일한 실마리가 ‘시간’에 있다면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해야 할까. 『인터스

44) 미치오 카쿠, 박병철 역, 『불가능은 없다』, 김영사, 2010, 337쪽.

텔라』는 『타임머신』의 ‘시간여행자’가 인류 전체에 남기고 간 이 지난한 숙제에 대해, 비교적 현실적인 대안을 모색하고 있다.

이 작품은 이상기후 속에 세계 각국의 정부와 경제가 완전히 붕괴된 상황에서, 전직 NASA의 파일럿이었던 쿠퍼가 물리학자인 브랜드 등과 팀을 이루어 새로운 인류의 보금자리를 찾아 우주로 떠나는 탐험을 골자로 하고 있다. 작품 전반에 걸쳐 인본주의와 가족애가 핵심적인 정서로 자리매김하고 있지만, 이 작품의 서사를 이끄는 표상적인 힘은 시간초월을 가능케 하는 학자들의 명석한 가설과 이를 현실로 치환하는 과학기술에서 발현된다. 예컨대, ‘중력(gavity)’에 기반한 시간초월의 이론<sup>45)</sup>을 비롯해, 작품을 관장하는 시간초월 장치이자 ‘타임머신’의 연장선상에 있다고 할 수 있는 ‘우주선, 복잡한 산술(算術)을 순식간에 해치워버리는 ‘로봇’, 노화시간을 지연시키는 ‘동면(冬眠) 기술’ 등, 실재하거나 실현 가능성이 입증된 모티프들을 전면배치함으로써, 이 작품은 시간초월을 신화적 혹은 환상적 영역에서 끌어내린다. 더 이상 시간을 초월하는 행위가 가상현실의 전유물이 아님을 반증하는 것이다. 그러나 여러 과학적인 근거에서 보여준 자신감<sup>46)</sup>과는 달리, 이 작품의 시간초월은 다분히 해체적 양상으로 전개된다. 시간초월의 장치는 검증이 끝났으나, 정작 그들이 극복해야 되는 목적지는 아직 검증되지 않은 미지의 영역이었기 때문이다. 결과적으로 작품 중반부에서 탐험대는 지구를 대체할 인류의 안식처를 토성(土星) 주변에서 발견하게 되지만, 그것은

45) 시간초월을 가능케 하는 타임머신의 원리는 크게 세 가지로 나뉜다. ① 속도를 이용한 경우, ② 중력을 이용한 경우, ③ 자연발생적인 경우이다. 이 작품 『인테르텔라』의 경우, ②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 이에 대해서는 내셔널지오그래픽채널, 〈네이키드사이언스S5-타임머신〉 <http://tvcast.naver.com/ngckorea> 를 참고하도록 한다.

46) 이러한 성향은 작품 마지막까지 일관된다. 예컨대, 아무런 데이터가 없는 웜홀(warm hole) 속으로 떨어진 주인공 쿠퍼는 외부의 존재에 대해 거론하는 로봇 타스에게 이와 같이 이야기한다. “우리야, 우리가 우리를 이곳에 데려온 거라구.”

초월적 시간을 의도적으로 통제하는 데서 온 성과라기보다는, 사실 시간의 해체 과정 속에서 우연히 발견한 대안(代案)<sup>47)</sup>으로 받아들여야 할 것이다. 이는 이미 자신보다 훨씬 늙어버린 딸과 그녀의 수많은 자손들을 눈앞에 둔, ‘아버지’ 쿠퍼의 심경과도 일치하며, 딸과의 해후를 뒤로 하고 브랜드 박사의 구조와 보다 완전한 인류의 거주지 탐색을 위해 남몰래 우주선에 탑승하는 ‘조종사’ 쿠퍼의 행동으로 더욱 심화된다.<sup>48)</sup> 인류의 마지막 생존 대안에 대한 실현을 성공시킨 쿠퍼지만, 정작 그 자신의 개인적인 가족사에 대한 복원은 영원한 미완성으로 남게 된다.<sup>49)</sup> 그럼에도 이러한 방법이 우리에게 여전히 유효한 이유는, 인간이 마지막에 의지할 것은 과학적인 논리도, 고차원적인 로봇도 아닌 삶에 대한 집념과 가족을 비롯한 신변에 대한 희생적 헌신이라는, 절대 놓쳐서는 안 될 마지막 본성과 의무에 관한 이야기를 해내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인터스텔라』 포스터에도 적힌 영화의 마지막 대사처럼 말이다.<sup>50)</sup>

김상훈의 지적대로, 『타임머신』 이래 점차로 진화해 온 시간 SF는,

47) 5차원과 3차원이 연결된 공간인 워홀(worm hole) 속에서, 주인공 쿠퍼가 중력(gravity)을 통해 차원에 관여한다. 이를 통해 흔들리는 현실 속 손목시계의 시계 바늘은, 이 작품의 주제이자 시간초월을 명징하게 상징한다고 볼 수 있다.

48) 쿠퍼가 우주선의 조종간에 다시 탑승하는 장면은, 『타임머신』의 ‘시간여행자가 해답을 찾으려 다시금 ‘타임머신’에 올라타는 그 모습과 의도적인 측면에서 공통적인 교차점을 지닌다고 할 수 있겠다.

49) 이에 대한 근거는 다음과 같다. ① 쿠퍼가 우주여행 중 자신의 부친의 임종을 한참이 지난 후에야 확인할 수 있었다는 점, ② 떠날 당시 청소년이었던 자녀들의 성장과 독립에 전혀 관여할 수 없었다는 점, ③ 딸 머피를 비롯한 자신의 자녀들이 자신보다 먼저 세상을 떠나게 되었다는 점 등이 바로 그것이다. 물론, 놀란 감독은 쿠퍼와 머피의 일시적인 해후를 통해 가족 간에 얽힌 고난의 시간들에 잠시나마 회복의 가능성을 부여하지만, 이러한 측면만으로 쿠퍼가 정상적인 가족의 일원으로 회귀했다고 보기에는 무리가 따를 것이다.

50) “우린 답을 찾을 것이다. 늘 그랬듯이.”라는 이 문구는 일종의 자기최면이자 초월적 힘을 담고 있다. 물론 이는, 과학이 주는 확신에 대한 희망이라기보다는, 어떤 운명론적인 사고가 주는 막연한 희망에 가까울 듯하다.

“시간 패러독스라는 장르의 성립에 의해 비로소 형이상학·사회 비판·로맨스의 가식을 벗어던지고 순수한 지적 유희의 전쟁터로 돌입할 수 있었던 것”<sup>51)</sup>이 사실이나, 『인터스텔라』의 사례에서도 알 수 있듯, 그것의 목표의식에서 발현되는 특유의 메타포는 그저 오락적인 차원에서 머무르지않은 않는다. 원시시대부터 미래까지 인류 역사를 조망한 『2001 스페이스 오디세이』(1968)의 광대한 전망을 대신해, 가족사를 통해 절박해진 인류의 대안을 모색한 놀란 감독이, 병충해 피해를 입은 디스토피아적인 지구의 형상을 사전에 내세운 것도 이러한 맥락을 대변하다. 정치적 신뢰는 이미 무너져 탈국가적 상상만이 가득한 묵시록적인 세계<sup>52)</sup>에 결국 마지막으로 남은 것은 아이러니하게도, 그것을 저지른 인간의 의지적 가능성을 시발점으로 한 마지막 도전에 있음을 다시 한 번 강조 혹은 부각시키고 있는 것이다. 비록 그것이 무채색 환경의 낮선 별 위에 하나의 점과 같이 홀로 서 있는, 한 명의 인간이 뿔어내는 미미한 존재 감만큼이나, 작은 가능성일지라도 말이다.

#### 4. 결론

일반적으로 시간을 넘나드는 행위는 생사의 영역에 직접적으로 관여해 물리적 한계를 조율하고 극복할 수 있다는 점에서, 신화 안에서도 특히 파격적인 소재로 분류된다. 이러한 시간초월의 서사들은, 허버트 조지 웰스의 『타임머신』을 기점으로 본격적으로 과학적인 상상력과 융합

51) 폴 앤더슨, 김상훈 역, 『타임 패트롤』, 행복한책읽기, 2008, 135쪽.

52) 쿠퍼가 자신의 딸이 다니는 학교에 면담을 갔을 때, 담당 교사가 ‘아폴론 11호’의 달 착륙 음모론을 거론하며 그것이 사기임을, 교과서를 통해 쿠퍼에게 확인시켜 주는 장면은 이러한 정치적 불신의 일반화를 상징하는 장면이 아닐 수 없다.

되며, 후속 세대들에 지속적인 영감을 주기에 이르렀다. 특히 작품 내에서 형성되는 파격적인 가설과 메타포, 이를 뒷받침 하는 이론은 단순히 설정이 주는 경이로움을 넘어, 시대적인 의미와 연결되며 다양한 변주를 거듭해왔다. 이 일련의 장르가 당대의 커다란 사회적 반향으로 확장될 수 있었던 것은, 시대가 직면한 문제를 분석하고 예측하는 작가들의 선구적인 시각과, 인간 그 자체의 존재적 정체성에 질문을 던지려는 끊임없는 예술적 노력이 병행되었기 때문일 것이다. 과학이 현상에 관한 증명과 원리로부터의 연역에 근거하며 생활 전반의 질을 끌어올리고 있을 때, 문학은 이미 그보다 한발 앞서 과학자들에게 착상의 실마리를 제공했던 것이다.

허버트 조지 웰스의 『타임머신』이 미래의 풍광에 대한 디스토피아적 세계관을 구축, 19세기 말 산업혁명으로 촉진된 자본의 비대화와 윤리적 해이를 비판하며 시간초월의 의미에 있어서 구체적인 전범 역할을 했다면, 1960년대를 기점으로 할리우드에서 꾸준히 발표되고 있는 시간초월 SF영화들은 뛰어난 영상기술과 시대밀착적인 담론을 앞세워 21세기 시간초월 서사의 선봉장 역할을 맡고 있다. 특히 2010년도 이후에 이와 연관된 작품들이 대거 등장하고 있는 현상은, 시간초월 서사의 또 다른 전성기를 예감케 하기에 충분해 보인다. 과학적 진보와 함께 불가능으로만 여겨지던 가설과 이론에 하나 둘 가능성의 시나리오가 부여되며 창작자의 의욕에 대한 자극이 이뤄졌다는 점과, 이를 통해 심화된 시대적 특수성이 관객들의 호응을 유도했다는 점도 이와 무관하지 않은 않을 것이다. 예컨대, 『소스 코드』(2011)에 나타나는 ‘소스 코드’ 프로그램의 치유적 우의와 한 개인이 갖게 되는 인간의 정체적 질문, 『옛지 오브 투 모로우』(2014)에 나타난 죽음과 생존의 시간적 역설, 『인터스텔라』(2014)에 나타나는 파멸 이후의 현실적 대안 등은 모두 『타임머신』이 이미 의



미한 바 있는 시대의식의 조각들을 나눠 가지며, 현대에 맞춰 확대 혹은 심화시켜냈다고 할 수 있다. 물론 이러한 시도들이 할리우드의 전유물만은 아니다. 『시월애』(2000)와 『동감』(2000) 등으로 멜로와 로맨스로서의 시간초월 서사에 의미 있는 성과를 거둔 바 있는 한국은, 2010년대에 접어들어 김현석 감독의 『열한시』(2013)를 비롯해, 다소 생소한 SF 시간초월 서사에도 본격적인 박차를 가하고 있으며, 2015년에는 곽재용 감독의 신작, 『시간이탈자』가 멜로와 스릴러의 측면에서 또 다른 시간초월의 면모를 보여줄 준비를 하고 있다.

이처럼 다양한 시간초월 영화들은 시대정신을 계승하며 각기 다른 과학적 모티프와 대안으로 자성(自省)과 함께, 다가올 앞날을 진단하고 있는 것이다.

## 참고문헌

### 1. 기본자료

- 더그 라이만 감독, 『엣지 오브 투모로우』, 워너브라더스, 2014.  
던칸 존스 감독, 『소스 코드』, 마크 고든 컴퍼니, 2011.  
크리스토퍼 놀란 감독, 『인터스텔라』, 레전더리 픽처스, 2014.  
허버트 조지 웰스, 조호근 역, 『타임머신』, 해와나무, 2013.

### 2. 논문과 단행본

- 김일구, 『영미문학개관』, 미래교육기획, 2012.  
마크 트웨인, 김영선 역, 『아서왕 궁전의 코네티컷 양키』, 시공사, 2010.  
미치오 카쿠, 박병철 역, 『불가능은 없다』, 김영사, 2010.  
박명진, 『텔레비전 드라마 <나인> 에 나타난 시간여행의 의미 연구』, 『어문론집』 제59집, 중앙어문학회, 2014, 275쪽-300쪽.  
서곡숙, 『시간여행 영화의 쾌락 : 시간, 죽음, 두려움으로부터의 해방』, 『영상예술연구』 18호, 영상예술학회, 2011, 67쪽-98쪽.  
서정남, 『영화서사학』, 생각의 나무, 2004.  
서지문, 『영국소설을 통해 본 영국신사도의 명암』, 세창출판사, 2014.  
소광희, 『시간의 철학적 성찰』, 문예출판사, 2001.  
신동훈, 『살아있는 우리 신화』, 한겨레출판, 2004.  
신상성, 『역사 속의 공상과학소설 유형 연구』, 『인문사회논총』 창간호, 용인대학교 인문사회과학연구소, 1998, 85쪽-102쪽.  
알베르토 안젤라, 주효숙 역, 『고대 로마인의 24시간』, 까치, 2012.  
존 가렛, 최영승 역, 『영국시의 이해와 역사적 개관』, 동인, 2013.  
최영진 · 김민중, 『시간여행 영화의 비선형적 사유 : <도니 다코>를 중심으로』, 『문학과 영상』 제11권 3호, 문학과영상학회, 2010, 833쪽-852쪽.  
츠베탕 토도로프, 최애영 역, 『환상문학서설』, 일월서각, 2013.  
폴 앤더슨, 김상훈 역, 『타임 패트롤』, 행복한책읽기, 2008.  
櫻坂 洋, ALL YOU NEED IS KILL, 集英社, 2004.  
내셔널지오그래픽채널, <네이키드사이언스S5-타임머신>  
<http://tvcast.naver.com/ngckorea>  
다큐 사이언스, <공상과학의 오랜 꿈 - 타임머신>  
[http://navercast.naver.com/contents\\_nhn?rid=57&contents\\_id=2145](http://navercast.naver.com/contents_nhn?rid=57&contents_id=2145)

## Abstract

Time Transcendence in 『The Time Machine』 of Herbert George Wells  
and Hollywood SF Movies in 2010s  
– 『Source Code』, 『Edge of Tomorrow』 and 『Interstellar』

Kim, Eun-Kyung (Chung-Ang University)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the aspect of time transcendence, its implicit emotional motive and symbolic meaning from recently released Hollywood SF movie narrative. Narrative access to virtual time or space through a scientific fiction has stimulated an expectation and belief about the potential possibility of human being that was not yet implemented. Science fiction, which has played a pivotal role as a spearhead with establishing a full-scale genealogy from 19th century, deeply inspires many scientists with an innovative hypothesis, metaphors, and the theories to support the hypothesis. However, the reason that this genre could cause a huge social sensation of the time is due to a precise analysis on problems facing the era, and an insight enabled it. Time transcendence in narrative was no exception. Time transcendence as a theme or partial motif, which was borrowed in many works already and built its frame, has been repeated many variations in its history and meaning.

Particularly, if 『The Time Machine』 of Herbert George Wells had a classic role in time transcendence genre with building a dystopian world-view on the future landscape and criticizing a moral hazard and an expansion of the capital accelerated by the Industrial Revolution in the end of 19th century, Hollywood has released steadily SF movies related to time transcendence starting from 1960s, and leads a time transcendence narrative genre in the 21st century with the superior imaging technology and time-based discourse. For example, a series of works released since 2010, like 『Source Code』(2011), 『Edge of Tomorrow』(2014) and 『Interstellar』(2014), have inherited the spirit of times and will diagnose the upcoming future with different scientific motifs & alternatives, along with self-reflection.

200 대중서사연구 제21권 1호

(Keywords: Past, SF, Future, Theory of Relativity, Time Travel, Time Transcendence,  
Desire, Gravity, Time Loop, Time Machine, Time Slip, Hollywood  
Movies, Illusion(Literature), Recovery)

투고일 : 2015년 3월 10일 투고

심사일 : 2015년 4월 4일 심사

수정보완일 : 2015년 4월 12일 수정제출

게재확정일 : 2015년 4월 15일